

## 논문 6

## 실업계 고교 졸업과 취업의 질

김 철 희\*

## 요약

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대안 제시를 위하여 기능인력 공급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동 즉, 중소기업으로의 취업과 관련한 이행 과정 및 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취업한 사업장 규모는 전 규모에서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중과 민간기업 및 개인기업체에 취업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한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업 또한 전기 전자, 영업 및 판매, 경영 회계사무 관련직에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소기업 취업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교육훈련 참여와 상용직으로의 취업이 소기업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 서비스업은 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고, 전기 전자 관련직은 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아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고용지원서비스 활용,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 시의 적절한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 제공, 체계적인 노동시장 이동 분석을 위한 통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핵심 Key Word: 실업계 고교 졸업, 중소기업, 취업의 질, 로짓 분석

## 1. 서론 및 문제제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양적으로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문제가 다소 완화되거나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급 기능 인력의 배출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로 기초 기능인력 양성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계의 수요변화에 실업계 고교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하여 실업계 고교의 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기를 초래한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공고 학생 수는 2000년 26만 명에서 2005년 18만 명으로 2000년 대비 30% 감소하였다. 2002년 이후 실업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진학률에 비하여 낮은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실업계의 높은 진학률은 기초 기능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인력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고졸 구직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D 관련 업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저임금이라도 쉬운 일을 찾는 관행으로 인해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77%가 고졸자 구인을 희망하고 있으나 구직 희망자의 65% 이상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학력 인플레 현상과 구인, 구직자간의 심각한 불균형은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초래하고 있다.

다른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 경향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필요인력의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채용 미달과 아울러 채용 후에도 신입사원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어 인력부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고졸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대부분 임금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급 기술, 기능 및 숙련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누구나 단시간에 습득이 가능한 단순노무 업무에 배치 활용되고 있는 점도 고졸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대안 제시를 위하여 기능인력 공급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동 즉, 중소기업으로의 취업과 관련한 이행과정 및 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실업계 고교생의 노동시장 이동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실업계 고교 졸업생과 관련한 연구에서 장창원 외(1999)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산업체 근무 현황과 실태 파악을 통하여 사업체에서의 고용 및 수요와 산업체의 현실이 실업계 고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정책방안으로는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임금 및 고용관행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김기홍 외(2000)는 실업계 고교 입학생 감소에 대응한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 강화와 수월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하여 어영효(2003) 중소기업의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의 의의와 결과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직종, 업종, 규모별 인력부족 현황, 인력수급 상의 애로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기획예산처(2003)에서도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을 구직자가 요구하는 임금수준, 작업환경, 복지시설, 사회적 인식의 수준과 중소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수준 간의 차이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기능불일치(skill mismatch)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생산직과 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

도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2006)에서도 매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 연구방법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현황 및 실증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분석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이다. 이 조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6,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여기에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과 그 배경을 함께 고려하고,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가구와 학교(담임, 학교행정가)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등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관한 심층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되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2005년 진학률은 67.6%, 진학자 중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은 37.0%에 이르고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2차년도 자료에는 전체 1,689명 중 대학진학 1,064명(63.0%), 취업 및 비진학 625명(37.0%)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KEEP 제2차 Wave(2005) 조사 표본

(단위: 명, %)

구분	설문대상	설문완료	응답률	비고
중3	2,000	1,779	89.0	일반고 진학(1,292)
				실업고 진학(473)
				취업, 비진학(11)
				중3 미졸업(3)
설문 못함(221)				
일반고3	2,000	1,789	89.5	대학생(1,391)
				취업, 비진학(397)
				일반고3 미졸업(1)
				설문 못함(210)
실업고3	2,000	1,689	84.5	대학생(1,064)
				취업, 비진학(625)
				설문 못함(311)
가구	6,000	5,399	90.0	
합계	12,000	10,656	88.8	

### 3.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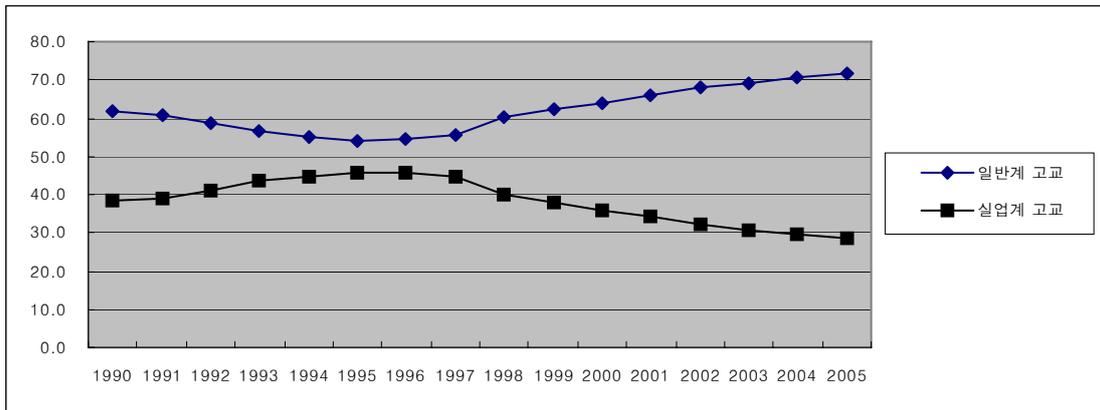
먼저 전체 고교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도 2,283천명이던 전체 학생 수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1993년 2,186천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1997년에는 2,480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2,071천명, 2005년에는 1,762천명까지 감소하였다. 계열별로 보면 일반계 고교의 경우 1990년 1,473천명에서 1994년 1,209천명까지 감소한 후 증가세로 돌아서 1998년 1,399천명까지 증가한 후 다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의 경우 1991년 901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1,104천명까지 증가하여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후 큰 폭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2005년 현재 503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고교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일반계 고교 및 실업계 고교 학생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저출산 등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학생 수가 차지하는 고교 계열별 상대적 비중은 1990년대 그 비중이 높았다가 1995~1998년 사이에 그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다시 격차가 벌어져 2005년 현재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학생 수의 상대적 비중은 가장 큰 상태이다. 이는 입학정원의 확대에 대학 입학의 문호가 크게 넓어지고,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경향으로 인한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생산 현장으로 투입되는 기능 인력의 부족으로 중소기업 등이 기능인력 수급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그림 2]에서 실업계 계열별 학생 수 분포를 보면 상업 계열의 학생 수 구성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업계 고교 학생 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타 계열은 기존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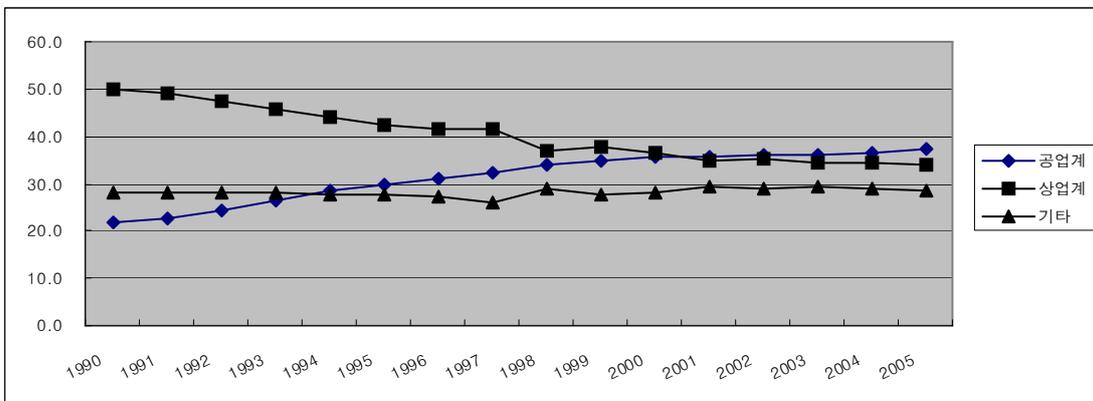
〈표 2〉 고교 계열별 학생 수 변화 추이

년도	(단위: 명)		
	고교 총학생수	일반계 고교생 수	실업계 고교생 수
1990	2,383,836	1,473,155	910,681
1991	2,308,187	1,406,891	901,296
1992	2,231,235	1,313,081	918,154
1993	2,186,140	1,237,182	948,958
1994	2,194,214	1,209,330	984,884
1995	2,303,899	1,246,427	1,057,472
1996	2,390,494	1,303,874	1,086,620
1997	2,480,738	1,376,688	1,104,050
1998	2,326,880	1,399,394	927,486
1999	2,251,140	1,399,389	851,751
2000	2,071,468	1,324,482	746,986
2001	1,911,173	1,259,975	651,198
2002	1,795,509	1,220,146	575,363
2003	1,766,529	1,224,452	542,077
2004	1,746,560	1,232,010	514,550
2005	1,762,896	1,259,792	503,10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재정리



[그림 1] 일반계, 실업계 고교 학생 수 구성비 변화



[그림 2] 실업계 계열별 학생 수 구성비 변화

분석 자료인 KEEP의 실업계 고교의 계열별 취업 및 비진학 학생은 <표 3>과 같이 총 610명이며, 이 중 상업계(정보)가 60.7%(370명), 공업계가 34.1%(20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공업계는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2.7%로 높고, 여자가 17.3%로 낮게 나타난 반면, 상업계(정보)는 여자의 비중이 83.0%로 높고, 여자가 17.0%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계열별 성별 구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 3>에서 보듯이 취업/비진학 표본에서 실업고 계열별 취업자는 총 413명으로 이 중 상업계(정보)가 72.7%(269명), 공업계가 63.0%(13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비진학 학생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학생 수		남자		여자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농업	20	3.3	13	65.0	7	35.0
공업	208	34.1	172	82.7	36	17.3
상업(정보)	370	60.7	63	17.0	307	83.0
해양수산	9	1.5	9	100.0	0	0.0
가사실업	3	0.5	2	66.7	1	33.3
계	610	100.0	259	42.5	351	57.5

〈표 4〉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취업자		미취업자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농업	20	100.0	8	40.0	12	60.0
공업	208	100.0	131	63.0	77	37.0
상업(정보)	370	100.0	269	72.7	101	27.3
해양수산	9	100.0	4	44.4	5	55.6
가사실업	3	100.0	1	33.3	2	66.7
계	610	100.0	413	67.7	197	32.3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졸업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을 찾고, 적합한 기업에 취업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업 전 학교에서 수행되었던 현장실습,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고용안정서비스 수혜 여부, 취업한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등 노동시장 진입 전후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전반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표 5>에서 보듯이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취업자의 현장실습 경험 여부를 보면, 참여 여부에서 공업계에서 65.6%(86명)이 참여한 반면, 상업계(정보)에서는 56.5%가 참여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장실습을 완료한 비중은 공업계, 상업계가 각각 82.6%, 88.0%로 높았으며,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체 규모를 보면 공업계의 경우 종사자 수가 50~299명인 사업체가 30.2%(2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1~49명이 20.9%(18명),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이 19.8%(17명) 순으로 나타나 49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상업계도 1,000명 이상 사업체가 28.2%(33명)으로 가장 높고, 10인 이하가 22.2%(26명), 11~49명 사업체가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재학 중 현장실습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실습 참가 일수를 보면 공업계가 70.3일, 상업계가 28.3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공업계가 4.5시간, 상업계가 1.0시간으로 나타나 공업계가 참가 일수와 하루 근무시간 모두 길게 나타났다.

<표 5>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자의 현장실습 경험 현황

(단위: 명)

구분	농업	공업	상업(정보)	해양수산	가사실업	계	
계	8	131	269	4	1	413	
참여 여부	참여	4	86	117	3	1	211
	미 참여	4	45	152	1	0	202
완료 여부	도중 그만	0	15	14	0	0	29
	완료	4	71	103	3	1	182
그만둔 이유	신체적부적응	0	3	2	0	0	5
	심리적정신적부적응	0	3	6	0	0	9
	산업체의 협약사항 불이행	0	1	1	0	0	2
	학교 측의 배치 부적절	0	0	3	0	0	3
	기타	0	8	2	0	0	10
	10인 이하	1	13	26	0	0	40
사업체 규모	11~49	1	18	23	2	0	44
	50~299	1	26	18	1	0	46
	300~999	1	12	17	0	0	30
	1,000인 이상	0	17	33	0	1	51

구분	농업		공업		상업(정보)		해양수산		가사실업	
계	8		131		269		4		1	
	m	sd	m	sd	m	sd	m	sd	m	sd
참가 일수	6.0	14.071	70.3	79.007	28.3	58.741	247.5	180.670	120.0	.
하루 평균 근무시간	0.6	6.070	4.5	7.078	1.0	7.052	7.5	9.815	8.0	.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자의 취업 관련 정보 취득 경로 및 고용지원 서비스 활용 정도를 <표 6>에서 살펴보면, 취업정보 입수 경로(1순위 기준)는 공업계에서는 인터넷, 취업사이트 등을 활용한 비중이 23.8%(10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구 또는 선후배가 21.4%(9명)으로 나타났다. 상업계에서는 학교(선생님 등)가 37.5%(27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으로 인터넷, 취업사이트 활용이 34.7%(25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인터넷, 취업사이트 등을 활용한 사례가 두 계열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는 반면, 공업계에서는 친구 또는 선후배를, 상업계에서는 선생님 등 학교를 통하여 취업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등 계열별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안정서비스(Work-net) 및 고용지원센터 인지, 활용 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센터 인지 여부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공업계, 상업계 모두 각각 9.5%, 16.7%로 나타나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고용지원센터 상담 여부에서도 공업계에서는 전무하며, 상업계에서도 3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최근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체계를 전면 혁신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용정보 시스템에 실고 졸업생 및 취업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보다 효율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이들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자의 취업 관련 정보 취득 현황

(단위: 명)

구분		농업	공업	상업(정보)	해양수산	가사실업	계
계		8	131	269	4	1	413
취업경로 (1순위기준)	학교(선생님 등)	1	6	27	0	0	34
	신문 TV등 언론매체	0	6	7	0	0	13
	인터넷 취업사이트 등	0	10	25	0	0	35
	부모 또는 친척	0	6	4	1	0	11
	친구 또는 선후배	1	9	6	1	0	17
	생활정보지	0	4	3	0	0	7
	학원	0	1	0	0	0	1
고용지원센터 인지여부	알고 있다	0	4	12	0	0	16
	모른다	2	38	60	2	0	102
상담원 상담 여부	상담 경험 있다	0	0	3	0	0	3
	없다	0	4	9	0	0	13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일자리 유형에서는 대부분 임금근로자인데 이는 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이며,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자영업이나 고용주가 되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다. 상용직 여부에서도 공업계는 73.4%(94명), 상업계(정보)는 85.3%로 상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상업계의 상용직 비중이 공업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 직장 유형에서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공업계와 상업계 각각 70.1%(89명), 67.9%(18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인 단체가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공업계는 10인 이하 사업장이 34.6%(44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서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1.3%(27명), 11~49명 사업장이 18.1%(23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계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8.0%(10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인 이하 사업장이 26.6%(70명), 50~299인 사업장이 12.5%(33명) 순으로 나타나 대기업에 취업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배치되는 것으로 공업계, 상업계 모두 사업장 규모로 볼 때 전 규모에 적절한 비중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 대기업에 취업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일반계 고교 졸업자 후 취업자의 특성<sup>1)</sup>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표본이 적은 관계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1) 일반계 고교 졸업자 표본 중 취업 및 비진학자는 383명이었으며, 취업자 수는 55명(14.4%)이었다. 이 중 임금근로자는 53명(96.3%)이며, 상용직이 31명(59.6%), 민간 개인 기업이 45명(84.9%), 10인 이하 사업장이 30명(56.6%)로 나타났다.

〈표 7〉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

구분		농업	공업	상업(정보)	해양수산	가사실업	계
계		8	131	269	4	1	413
일자리 유형	임금근로자	7	128	265	4	1	405
	자영업자	0	0	1	0	0	1
	무급가족종사자	1	2	2	0	0	5
상용직 여부	상용직	5	94	226	4	1	330
	비상용직	2	34	39	0	0	75
비상용직 이유	상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0	4	11	0	0	15
	비상용직을 원해서	0	5	7	0	0	12
	상관없다	2	19	19	0	0	40
	기타	0	6	2	0	0	8
소속 직장 유형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6	89	180	4	0	279
	정부지원 공공기관	0	1	4	0	0	5
	법인단체	0	36	77	0	1	114
	정부기관	1	1	4	0	0	6
사업장 규모	10인 이하	6	44	70	2	0	122
	11~49	1	23	31	0	0	55
	50~299	0	21	33	2	0	56
	300~999	0	12	29	0	0	41
	1,000인 이상	0	27	100	0	1	128

주: 결측치는 제외

실업계 고교 졸업자 중 취업자들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공업계의 경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4.6%(5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21.5%(26명), 숙박 및 음식점업 15.7%(19명) 순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하여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상업계에서도 제조업이 54.3%(140명), 도매 및 소매업이 15.5%(4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8%(3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업계 고교 취업자의 절반이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금과 같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표 8〉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구분	농업	공업	상업(정보)	해양수산	가사실업	계
4 제조업	1	54	140	1	1	197
5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0	1	1	0	0	2
6 건설업	0	1	0	0	0	1
7 도매 및 소매업	1	26	40	0	0	67
8 숙박 및 음식점업	1	19	33	0	0	53
9 운수업	0	1	2	3	0	6
10 통신업	0	0	2	0	0	2
11 금융 및 보험업	0	2	0	0	0	2
12 부동산 및 임대업	0	0	2	0	0	2
13 사업서비스업	0	1	6	0	0	7
14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1	2	2	0	0	5
15 교육 서비스업	0	0	3	0	0	3
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	2	10	0	0	12
1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	9	9	0	0	19
18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	3	8	0	0	12
계	6	121	258	4	1	390

주: 결측치(23)는 제외

다음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공업계의 경우 전기 전자 관련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4.8%(3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순으로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24.0%(30명), 음식 서비스업 관련직이 12.8%(16명), 기계 관련직이 9.6%(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음식 서비스업 관련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공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전공 분야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상업계의 경우도 전기 전자 관련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10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18.3%(48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16.0%(42명) 순으로 나타나 공업계와는 일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체적인 직업분포는 공통적으로 전기 전자 관련직, 영업 및 판매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농업	공업	상업(정보)	해양수산	가사실업	계			
2 경영회계사무	1	4	3.2	48	18.3	0	0	53	13.3
6 보건의료	0	1	0.8	8	3.0	0	0	9	2.3
7 사회복지 및 종교	0	0	0.0	1	0.4	0	0	1	0.3
8 문화예술디자인 방송	1	1	0.8	2	0.8	0	0	4	1.0
9 운전 및 운송	0	3	2.4	2	0.8	3	0	8	2.0
10 영업 및 판매	2	30	24.0	42	16.0	0	0	74	18.5
11 경비 및 청소	0	2	1.6	1	0.4	0	0	3	0.8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0	9	7.2	12	4.6	0	0	21	5.3
13 음식 서비스	1	16	12.8	17	6.5	0	0	34	8.5
14 건설	0	3	2.4	0	0.0	0	0	3	0.8
15 기계	0	12	9.6	3	1.1	1	0	16	4.0
16 재료	1	7	5.6	4	1.5	0	0	12	3.0
17 화학	0	0	0.0	4	1.5	0	0	4	1.0
18 섬유 및 의복	0	1	0.8	0	0.0	0	0	1	0.3
19 전기 전자	0	31	24.8	108	41.1	0	1	140	35.0
21 식품가공	0	0	0.0	3	1.1	0	0	3	0.8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0	5	4.0	8	3.0	0	0	13	3.3
23 농림 어업	1	0	0.0	0	0.0	0	0	1	0.3
계	7	125	100	263	100.0	4	1	400	100.0

주: 결측치(13)는 제외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취업자들의 업무에 대한 평소 생각과 만족도를 보면, 먼저 전공 관련 평소 생각을 물어 본 질문에 전공과의 일치 여부는 공업계 2.4, 상업계는 2.6으로 나타나 대체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이 자신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도 모두 낮게 나타나 전공과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나아가 생산성 및 이직률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식, 기능 축적이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에 대한 검토 및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공업계가 3.0, 상업계가 3.1로 나타나 평균수준을 보였으며, 직장 관련 만족도에서는 대부분 평균은 상회하고 있으나 임금 부분

을 제외하고 근무환경, 근무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개인의 발전 가능성, 복지후생, 직장의 안정성 등 모든 부분에서 공업계 보다는 상업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0〉 실업계 고교 취업자의 업무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

구분	계열 계	농업		공업		상업(정보)		해양수산		가사실업	
		8	131	269	4	1					
		m	sd	m	sd	m	sd	m	sd	m	sd
평소 생각	전공과의 일치 여부	2.13	3.044	2.40	1.658	2.58	1.346	2.50	0.577	3.00	.
	요구 기술/능력이 내 수준보다 높다	1.38	2.669	2.14	1.558	2.34	1.244	3.00	1.414	4.00	.
	요구 기술/능력이 내 수준보다 낮다	1.75	2.816	2.11	1.520	2.27	1.274	2.75	1.258	4.00	.
업무만족도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	2.38	3.114	3.03	1.529	3.14	1.268	3.00	0.000	4.00	.
직장 관련 만족도	근무환경	2.75	3.240	3.21	1.598	3.26	1.248	2.50	1.000	4.00	.
	근무시간	2.50	3.071	2.95	1.585	3.07	1.285	2.00	0.816	5.00	.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2.38	3.021	3.37	1.613	3.43	1.287	2.25	0.500	4.00	.
	임금	2.25	3.012	3.01	1.596	2.96	1.272	2.25	0.957	4.00	.
	개인의 발전 가능성	2.00	3.024	2.57	1.673	2.64	1.369	2.50	1.291	4.00	.
	복지후생	2.00	2.928	2.73	1.687	3.03	1.386	2.25	0.957	5.00	.
	직장의 안정성	2.13	3.091	2.91	1.689	3.34	1.350	2.75	0.500	5.00	.

실업계 고교 취업자의 계열별 교육훈련 참여 현황을 보면, 공업계 고교의 경우 참여자가 9.9%(13명), 미참여자 90.1%(118명), 상업(정보)계 고교는 참여자 9.3%(25명), 미참여자 90.7%(244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참여자는 9.4%(39명), 미참여자는 90.6%(374명)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직종의 경우도 각 직종별로 극소 표본이 분포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분 해당 종사 직종과 동일하며, 신입사원 교육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훈련의 훈련 기간, 하루 평균 훈련 시간, 총 비용 등을 경우 제대로 응답한 경우가 적어 결측치가 많이 나왔다.

〈표 11〉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자의 교육훈련 현황

구분		농업	공업	상업(정보)	해양수산	가사실업	계
계		8	131	269	4	1	413
참여 여부	참여	0	13	25	1	0	39
	미참여	8	118	244	3	1	374
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	0	2	1	1	0	4
	직업훈련법인	0	1	1	0	0	2
	사설학원	0	1	2	0	0	3
	사업주단체훈련기관	0	7	18	0	0	25
	기타	0	2	3	0	0	5

실업계 고교 취업자의 계열별 전직 고려 여부를 살펴보면, 공업계의 경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자는 10.2%(13명),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89.8%(115명)이며, 상업계(정보)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8.1%(48명), 하지 않고 있는 자는

81.9%(217명)으로 나타나 대부분 현재 구직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표본이 2차년도 자료이므로 첫 직장으로 조사 시점 시 취업 후 아직 적응하는 시기일 수도 있으므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거나 이직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이 적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가 횡수를 거듭될수록 실업계 고교 및 취업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구직활동이 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 취업한 사업장 규모를 볼 때 대기업에 취업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추세가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12〉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자의 전직 고려 여부

(단위: 명)

구분		농업	공업	상업(정보)	해양수산	가사실업	계
계		8	131	269	4	1	413
현재 구직활동 여부	예	0	13	48	2	0	63
	아니오	7	115	217	2	1	342
구직활동 이유	발전 전망 없어서	0	2	12	1	0	15
	적성 맞지 않아서	0	3	10	0	0	13
	보수가 적어서	0	3	15	0	0	18
	열악한 근무환경	0	1	2	1	0	4
	동료와의 불화	0	1	1	0	0	2
	기술/기능수준 불일치	0	0	1	0	0	1
	기타	0	3	7	0	0	10

#### 4. 실업계 고교 졸업과 중소기업 취업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취업자들의 취업의 질을 보기 위하여 사업체 규모별로 관련 변수를 분석하였다. 이는 실제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계열 구분은 실업계 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업계와 상업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체 규모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구분 기준으로 적용하는 299인 이하를 중심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인 10인 이하와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용직 여부에서는 먼저 공업계의 경우 10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1.4%, 비상용직은 38.6%로 비상용직 비중이 높은 반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비중이 높아지고, 비상용직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채용 및 근로조건에서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상용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기업 취업 선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비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장분류 형태를 보면,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공업계, 상업계 모두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도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중이 감소하여 대기업 취업이 그만큼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으로 재단, 사단 법인단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청년층 노동시장 특징 중의 하나인 공공부문으로의 취업을 선호하는 현상과 연계해 볼 때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는 정부출연, 투자, 공사합동기업 등의 정부지원 공공기관과 공무원, 경찰, 군인 등 정부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양질의 일자리의 취업이 용이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 13〉 사업체 규모별 실업계 고교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

(단위: 명)

구분	공업계				상업계				
	10인 이하	11~299인	300인 이상	계	10인 이하	11~299인	300인 이상	계	
계	44	44	39	127	70	64	129	263	
상용직 여부	상용직	27	31	35	93	48	55	121	224
	비상용직	17	13	4	34	22	9	8	39
직장 분류 형태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43	32	13	88	67	40	71	178
	정부지원 공공기관 (투자,출연,합동기업)	0	0	1	1	0	3	1	4
	법인단체 (재단 사단)	1	11	24	36	3	17	57	77
	정부기관 (공무원,군인,경찰)	0	1	0	1	0	4	0	4
		0	2.27	0		0.0	6.3	0.0	
		61.4	70.5	89.7		68.6	85.9	93.8	
		38.6	29.6	10.3		31.4	14.1	6.2	

실업계 고교 취업자들이 취업한 사업체 규모별 직무에 대한 평소 의견과 직무 등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먼저 전공 일치 여부는 공업계의 경우 10인 이하 사업장이 2.16, 11~299인이 2.75, 300인 이상 사업장이 2.85 등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전공과의 일치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업계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보다 11~299인 사업체가 높게 나타나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수준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조사 결과 공업계는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지만 상업계는 전공 일치도와 마찬가지로 11~299인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는 대부분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임금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공업계보다 상업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11~299인 규모에서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와 임금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마찬가지로 상업계가 공업계 보다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도 근무환경,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임금 등의 만족도를 제외한 기타 조건은 상업계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일정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4〉 사업체 규모별 실업계 고교 취업자의 업무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

구분	10인 이하		11~299인		300인 이상							
	공업계		상업계		공업계		상업계					
	m	sd	m	sd	m	sd	m	sd				
전공과의 일치 여부	2.16	1.446	2.49	1.073	2.75	1.102	2.84	1.087	2.85	0.961	2.71	0.850
요구 기술/능력이 내 수준보다 높다	1.68	1.216	2.09	0.794	2.41	0.923	2.70	0.885	2.87	0.864	2.53	0.830
요구 기술/능력이 내 수준보다 낮다	1.68	1.095	2.01	0.825	2.36	0.917	2.58	0.905	2.82	0.885	2.49	0.920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	3.05	1.033	3.33	0.775	3.34	0.834	3.28	0.863	3.28	0.857	3.22	0.752
근무환경 만족도	3.14	1.340	3.29	0.725	3.48	0.731	3.34	0.801	3.64	0.707	3.45	0.696
근무시간 만족도	3.02	1.338	3.09	0.775	3.20	0.795	3.22	0.917	3.18	0.854	3.25	0.801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3.45	1.266	3.57	0.772	3.61	0.841	3.59	0.886	3.64	0.778	3.53	0.708
임금 만족도	2.98	1.303	2.87	0.815	3.25	0.839	2.91	0.886	3.38	0.847	3.27	0.747
개인의 발전 가능성 만족도	2.50	1.486	2.57	1.187	2.91	1.030	2.73	0.802	2.85	1.065	2.87	0.979
복지후생 만족도	2.18	1.299	2.50	0.913	3.09	0.910	3.13	0.900	3.51	1.023	3.52	0.867
직장의 안정성 만족도	2.55	1.389	3.13	0.916	3.27	0.899	3.27	0.740	3.51	1.023	3.74	0.850
계	44		70		44		64		39		129	

사업체 규모별 취업들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제조업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공업계, 상업계 모두 각각 83.8%, 89.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인 이하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은 공업계, 상업계가 각각 34.1%, 28.4%, 숙박 및 음식점업은 두 계열 각각 29.6%, 26.9% 등으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가 작은 기업에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전체 취업 경향과 일치하나 제조업은 대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중소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취업 비중이 큰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별 집중 현상 해소와 전공과 적합한 일자리로의 취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 사업체 규모별 실업계 고교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공업계				상업계			
	10인 이하	11~299인	1000인 이상	계	10인 이하	11~299인	1000인 이상	계
4 제조업	2 4.6	21 52.5	31 83.8	54	4 6.0	22 35.5	113 89.0	139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 0.0	1 2.5	0 0.0	1	0 0.0	1 1.6	0 0.0	1
6 건설업	0 0.0	1 2.5	0 0.0	1	-	-	-	-
7 도매 및 소매업	15 34.1	8 20.0	3 8.1	26	19 28.4	12 19.4	8 6.3	39
8 숙박 및 음식점업	13 29.6	5 12.5	1 2.7	19	18 26.9	10 16.1	5 3.9	33
9 운수업	0 0.0	0 0.0	1 2.7	1	1 1.5	1 1.6	0 0.0	2
10 통신업	-	-	-	-	1 1.5	1 1.6	0 0.0	2
11 금융 및 보험업	2 4.6	0 0.0	0 0.0	2	-	-	-	-
12 부동산 및 임대업	-	-	-	-	2 3.0	0 0.0	0 0.0	2
13 사업서비스업	0 0.0	1 2.5	0 0.0	1	2 3.0	4 6.5	0 0.0	6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2.3	1 2.5	0 0.0	2	0 0.0	2 3.2	0 0.0	2
15 교육 서비스업	-	-	-	-	0 0.0	3 4.8	0 0.0	3
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 0.0	1 2.5	1 2.7	2	8 11.9	2 3.2	0 0.0	10
17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8 18.2	1 2.5	0 0.0	9	6 9.0	3 4.8	0 0.0	9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3 6.8	0 0.0	0 0.0	3	6 9.0	1 1.6	1 0.8	8
계	44	40	37	121	68	64	129	261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공업계의 경우 전기 전자 관련직은 1,000인 이상 사업체 즉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사업체 규모가 감소할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영업 및 판매 관련직과 음식 서비스업은 10인 이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 관련직은 11~299인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업계의 경우,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전기 전자 관련직은 공업계와 마찬가지로 1,000인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사업체 규모가 작은 순으로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가 많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은 11~299인 규모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영업 및 판매, 음식 서비스 관련직은 10인 이하 사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업계, 상업계 모두 취업자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 전자 관련직은 대기업 취업자 수가 많은 반면, 영업 및 판매, 음식 서비스업 등에서는 10인 이하 사업체에서 높게 나타나

직업별로 사업체 규모별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은 직업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직무능력축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사업체 규모별 실업계 고교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공업계				상업계			
	10인 이하	11~299인	1000인 이상	계	10인 이하	11~299인	1000인 이상	계
2 경영회계사무	1 2.3	2 4.7	1 2.6	4	12 17.7	27 42.2	9 7.0	48
6 보건의료	0 0.0	0 0.0	1 2.6	1	7 10.3	1 1.6	0 0.0	8
7 사회복지 및 종교	-	-	-	-	0 0.0	1 1.6	0 0.0	1
8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1 2.3	0 0.0	0 0.0	1	0 0.0	0 0.0	2 1.6	2
9 운전 및 운송	1 2.3	2 4.7	0 0.0	3	1 1.5	1 1.6	0 0.0	2
10 영업 및 판매	16 36.4	11 25.6	3 7.9	30	17 25.0	12 18.8	12 9.3	41
11 경비 및 청소	0 0.0	1 2.3	1 2.6	2	0 0.0	1 1.6	0 0.0	1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9 20.5	0 0.0	0 0.0	9	11 16.2	1 1.6	0 0.0	12
13 음식 서비스	12 27.3	4 9.3	0 0.0	16	14 20.6	3 4.7	0 0.0	17
14 건설	0 0.0	2 4.7	1 2.6	3	-	-	-	-
15 기계	1 2.3	8 18.6	3 7.9	12	1 1.5	2 3.1	0 0.0	3
16 재료	1 2.3	1 2.3	5 13.2	7	1 1.5	2 3.1	1 0.8	4
17 화학	-	-	-	-	0 0.0	2 3.1	2 1.6	4
18 섬유 및 의복	0 0.0	1 2.3	0 0.0	1	-	-	-	-
19 전기 전자	1 2.3	9 20.9	21 55.3	31	1 1.5	7 10.9	99 76.7	107
21 식품 가공	-	-	-	-	2 2.9	0 0.0	1 0.8	3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1 2.3	2 4.7	2 5.3	5	1 1.5	4 6.3	3 2.3	8
계	44	43	38	125	68	64	129	261

## 5. 실업계 고교 졸업생과 중소기업 선택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취업자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구조적인 요인 즉,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선호 및 선택의 결과에 따르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들이 사업체 규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선택할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계 고교 졸업과 중소기업으로의 취업과의 연관 관계를 각 변수별로 측정할 수 있다. 분석은 앞 절의 결과에 따라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취업하는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하 사업체와 1,000인 이상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고려하여 먼저 10인 이하 소기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11~299인,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먼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소기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업계와 상업계의 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으며, 남자, 광역시 이상 거주자의 경우 소기업 취업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에 참여할수록 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낮으며,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수록 소기업 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조사 시점과 취업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제약은 있으나 교육훈련에 참여할수록 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낮고, 상용직일수록 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대기업에 비하여 교육훈련 실시와 취업의 질,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소기업이 열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과 직업 변수를 추가한 모형2에서는 음식서비스 관련직일 경우 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고, 전기 전자 관련직일 경우 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낮아 업종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7>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소기업(10인 이하) 취업 결정 요인(로짓)

(단위: 명, %)

구분	모형1		모형2	
	Coefficient	SD	Coefficient	SD
상수	0.218	0.716	0.267	0.760
계열(농업)				
공업	1.412 ***	0.641	1.355 ***	0.671
상업	1.113 ***	0.658	0.921	0.696
성(남자)	0.788 ***	0.335	0.449	0.360
지역(광역시)	1.233 ***	0.237	0.516 ***	0.271
현장실습(참여)	-0.235	0.241	-0.149	0.267
교육훈련(참여)	-0.805 **	0.488	-0.340	0.535
고용지원센터(상담)	-1.330	7.532	-1.358	7.876
종사상지위(상용직)	-0.744 ***	0.278	-0.288	0.301
산업(제조업)				
도소매			0.470	0.416
숙박 음식업			-0.545	0.659
직업(경영회계사무)				
영업판매			0.205	0.421
음식서비스			2.488 ***	0.787
전기전자			-3.244 ***	0.745
-2 Log L	434.964		352.925	
N	413			

주: \*\*\*, \*\*, \*는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음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중기업 이상 규모(11~299인과 300인 이상으로 구분) 기업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모형1에서는 광역시 이상 거주자와 실업계 고교 재학 시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의 취업 가능성이 높게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 뿔수를 추가한 모형2에서는 음식서비스 관련직과 전기전자 관련직 모두 취업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3의 경우 남자와 광역시 이상 지역 거주자의 취업 가능성은 낮게 나타난 반면, 교육훈련 참여와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 현실적으로 고용조건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나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중기업(11~299인, 300인 이상) 취업 결정 요인(로짓)

(단위: 명, %)

구분	모형1(11~299인)		모형2		모형3(300인 이상)		모형4	
	Coefficient	SD	Coefficient	SD	Coefficient	SD	Coefficient	SD
상수	-1.623 ***	0.785	-1.516 ***	0.805	-2.645 ***	1.149	-2.739 ***	1.317
계열(농업)								
공업	0.518	0.694	0.892	0.709	1.816 ***	1.095	1.651	1.271
상업	0.010	0.717	0.387	0.737	1.941 ***	1.096	1.595	1.262
성(남자)	-0.184	0.331	-0.219	0.346	-0.812 ***	0.362	-0.675	0.437
지역(광역시)	0.585 ***	0.234	0.241	0.262	-1.700 ***	0.264	-0.837 ***	0.322
현장실습(참여)	0.501 ***	0.235	0.515 ***	0.244	-0.117	0.239	-0.303	0.292
교육훈련(참여)	-0.518	0.431	-0.430	0.453	1.218 ***	0.413	0.959 ***	0.477
고용지원센터(상담)	1.720	1.241	1.075	1.256	-0.660	1.294	0.105	1.264
종사상지위(상용)	0.033	0.292	0.367	0.307	1.398 ***	0.359	0.518	0.405
산업(제조업)								
도소매			-0.195	0.431			-0.358	0.553
숙박 음식점			0.456	0.610			0.339	0.685
직업(경영회계사무)								
영업판매			-0.394	0.434			0.457	0.53
음식서비스			-1.453 ***	0.749			-1.392	3.403
전기전자			-1.619 ***	0.340			2.803 ***	0.341
-2 Log L	461.768		432.725		441.519		326.378	
N	413							

주: \*\*\*, \*\*, \*는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취업하고, 취업한 분야 및 취업 관련 전반의 정보를 파악하여 연계 분석하고, 실업계 졸업생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취업한 사업장 규모는 일반적인 사실과 달리 전 규모에서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업계의 경우 대기업에 취업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 과정에서 고용지원서비스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중과 민간기업 및 개인기업체에 취업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한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업 또한 전기 전자, 영업 및 판매, 경영회계

사무 관련직에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업무 만족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 이하로 나타나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공업계, 상업계 등 주요 계열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한 분석을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직업별로는 전기 전자 관련직에서 대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산업 및 직업에서는 10인 이하 소기업 비중이 높았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소기업 취업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교육훈련 참여와 상용직으로의 취업이 소기업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 서비스업은 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고, 전기 전자 관련직은 소기업 취업 가능성이 높아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고용보험 전 사업을 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인정 업무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를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 시스템과 연계한 훈련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현장실습이 입직 전 교육훈련의 전부임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희망 직업이 실제 직업으로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육통계연보는 물론 KEEP DB와 고용보험DB와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명확한 노동시장 이동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LaMAS)을 통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노동시장 및 고용 관련 정보를 실시간 혹은 정기적으로 받아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동향 파악과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고용 정보 유통 체계의 활용을 통하여 실업계 고교생들에 대한 직업, 산업, 규모 등 다양한 지표별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과 더불어 적합하고,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신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첫째,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활용이 부족하여 분석의 구체성이 미흡하였다. 즉, 패널 표본조사 2차년도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첫 해이므로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입직과 이직 현황이 처음 관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직이 잦고, 노동이동이 활발한 시장임을 고려해 볼 때 조사가 축적될수록 이들의 구체적인 행태를 추적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계 고교 졸업생과 대학 진학자들과의 비교가 미진하다. 이는 일반계 고교 졸업생 표본이 지극히 적었고, 대학 진학자들과의 지표별 상대비교가 가능한 변수가 적합하지 않아 이는 추후 대학 혹은 전문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시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가구 자료와 연결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생 및 취업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통계연보 등 국가 일반교육 통계의 취업 및 노동시장 이행 현황과 본 분석 자료와의 세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김기홍·장석민·손유미·장명진(2000), 실업계 고교 입학생 감소 대응 및 진로정보 체제 구축 방안, 교육부
- 김형만·김철희(2000), 중소기업의 인력구조와 직업교육훈련 수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어영효(2003),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과 전망-인력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직업과 인력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창원·백성준·김형만(1999),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산업체 근무현황에 대한 실태 분석, 교육부  
기획예산처 [www.mpb.go.kr](http://www.mpb.go.kr)
- 중소기업청 [www.smba.go.kr](http://www.smba.go.kr)

토 론 문

『실업계 고교 졸업과 취업의 질』에 대한 토론

김 주 섭\*

- 본 논문은 실업계 고교 졸업자들의 노동이동에 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연구와 정책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전체적인 규모와 취업실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괄적 분석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KEEP 자료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됨.
  - 실업계 고교 계열별 취업자의 취업관련 정보 취득 과정,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일자리 특성, 실업계 고교 취업자의 산업별·직업별 분포 등 기존에 신뢰할 만한 자료로서 입증할 수 없었던 많은 내용들이 분석되고 있음.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발표자는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는 바,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정책제언인 것으로 사료됨.
  - 첫째,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함. 특히 고용지원센터 관내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고용지원센터와의 연계·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실업계 고교 취업자의 교육훈련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도 보여지고 있듯이 이들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도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인 것으로 봄. 특히 공공 훈련기관의 경우 이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이후에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셋째,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진로지도 및 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로정보 제공 내실화 방안도 매우 중요한 정책방안인 것으로 사료됨. 특히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교육청과 고용지원센터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넷째, KEEP DB와 고용보험 DB, 교육통계연보 등과의 자료연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안이라고 봄.

□ 본 논문이 그간 이 분야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부분을 분석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나,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기업규모별 취업결정요인 분석(<표 17> 및 <표 18>)에서 분석의 기초가 되는 경제 모형 내지는 경제적 이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발표자께서는 기업규모별 취업에 미치는 요인으로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등 거시적 요인과 개인의 선호 및 선택의 결과에 따르는 개인적(혹은 미시적)요인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취업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둘째, 발표자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결정요인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분리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분석방법이 어떠한 분석상의 잇점이 있는가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토론자의 의견으로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 중 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 앞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진학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이들(혹은 이들 부모들)의 의사결정 절차는 취업/진학 선택 → 취업의 경우 기업특성(기업규모 혹은 업종) 선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일 것임.
- 넷째, 전반적으로 필자가 지적하였다시피 자료의 한계로 인한 분석상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나, 기존에 조사된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음.
  - 계량분석(<표 17> 및 <표 18>)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결정 요인 분석 중, 부모특성 및 학교특성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이 왜 누락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